

## “細辛不過錢”에 관한 연구

박필상<sup>1#</sup>, 강옥화<sup>1</sup>, 이고훈<sup>1</sup>, 박신영<sup>2</sup>, 성만준<sup>1</sup>, 권동렬<sup>1\*</sup>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A study of "Asari Herba should not exceed Jeon(錢, Qian, 3.0 gram)"

Pil-Sang Park<sup>1#</sup>, Ok Hwa Kang<sup>1</sup>, Go-Hoon Lee<sup>1</sup>, Shin-young Park<sup>2</sup>,  
Man-Jun Seong<sup>1</sup>, and Dong Yeul Kwon<sup>1\*</sup>

1: 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 749, Korea, 2: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s, Anyang 430-016, Republic of Korea

### ABSTRACT

**Objectives** : Asari Herba comes from the dried perennial herbaceous plant, *Asarum sieboldii* MIQ., *A. heterotropides* FR. SCHMIDT var. *mandshuricum*(MAXIM.) KITAG. and *A. sieboldii* MIQ. var. *seoulense* NAKAI, family Aristolochiaceae. This medicine is pungent in flavor(味辛), warm in nature(性溫), mildly toxic and affects the lung, kidney, and heart meridians. It is able to repel wind and dispel cold(祛風散寒), remove the obstruction of the nose(宣通鼻竅), relieve pain(止痛) and warm the lungs to remove the retention of fluids(溫肺化飲). In a clinic it is prescribed for exterior syndrome of wind-cold type(風寒表證) manifested as headache and general pain. It is indicated for headaches, toothaches, bisyndrome of wind-cold-dampness type(風寒濕痺), etc.

For many generations medical books have warned doctors that the dosage of Asari Herba should not be excessive because the pungent flavor has the effect of dispersing exopathogens from superficialities of the body. The principle, "Asari Herba should not exceed Jeon(錢, Qian, 3.0 gram)" is still considered to be relevant.

**Methods** : Extensive research of several ancient medical texts ha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Results** : The statement "Asari Herba should not exceed Jeon" is a dosage which is used to prepare single recipe and powder.

**Conclusion** : The definition of Jeon is not 1 Jeon(3.0 gram), but 1 Jeonbi(錢匕, Qianbi, 1.0 gram), moreover, the usage, collection, and refinement proces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the ancient medical texts. A deeper study of Asari Herba's dosage in the future is expected to have interesting results.

**Key words** : Asari Herba, Jeon(錢, Qian, 3.0 gram), Jeonbi(錢匕, Qianbi, 1.0 gram)

#제1저자 : 박필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 Tel: 063-850-6802 · E-mail: pps-cn@hanmail.net

\*교신저자 : 권동렬,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 Tel: 063-850-6802 · E-mail: sssimi@wonkwang.ac.kr

· 접수 : 2007년 02월 24일 · 수정 : 2007년 03월 06일 · 채택 : 2007년 03월 20일

## 서론

細辛은 쥐방울덩굴과(Aristolochiaceae)에 속한 다년생草本인 쪽도리(華細辛), 민쪽도리풀(北細辛) 등의 뿌리, 또는 뿌리와 뿌리줄기로서 祛風散寒, 宣通鼻竅, 止痛 및 溫肺化飲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sup>1)</sup>. 그러나南宋의 陳承《本草別說》에서 細辛에 副作用이 있음을 언급한 이후로 《本草綱目》, 《本草備要》, 《得配本草》, 《會約醫鏡》 등에서도 陳承의 말을 인용하여 副作用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심지어 《醫學入門》에서는 細辛에 小毒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오랫동안 이러한 古訓은 여러 醫家들에게 細辛을 사용할 때는 錢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하였고, 현재도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細辛不過錢”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세신의 독성에 관한 여러 임상연구보고, 특히 1964년 上海中醫藥雜誌 발표된 두통·치통으로 사용된 5錢의 細辛으로 인한 호흡곤란, 정신혼미 등의 부작용은 이를 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과거의 많은 醫籍의 기록으로 이 원칙에 위배되는 예가 있었으며, 또한 현재에도 “細辛不過錢”의 벽을 돌파하려는 시도와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여러 임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細辛不過錢의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고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을 조사하여 임상과 기초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본론

### 1. 細辛不過錢의 유래와 의미

細辛은 《神農本草經》<sup>2)</sup>에 上品에 속하는 약재로서 “味辛溫, 主欬逆, 頭痛, 百節拘攣, 風濕痹痛, 死肌, 久服多服明目, 利九竅, 輕身長年.”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毒의 유무와 사용해야 할 용량은 언급하지 않았다. “細辛不過錢”이란 말은 임상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말로써 細辛을 사용할 때는 그 용량이 一錢을 초과하면 위험을 초래한다는 뜻이다.宋代 陳承의 《本草別說》이란 책에 최초로 언급되었으나 원본은 현재 유실되고, 《證類本草》<sup>3)</sup>와 《本草綱目》<sup>4)</sup>에서 인용된 것을 볼 수 있다.宋代에 唐愼微의 《證類本草》에서는 “別說云：細辛, 若單用末, 不可過半錢匕, 多即氣悶塞不通者死, 雖死無傷. 近年關中或用此毒人者, 聞平涼獄中嘗治此, 故不可不記, 非本有毒, 但以不識多寡之用, 因以有此.”라고 《本草別說》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러나明代에 李時珍은 《本草綱目》卷十三 草部[發明]편에 “(承曰)細辛非華陰者不得爲真, 若單用末, 不可過一錢, 多則氣悶塞不通者死”라고 기록하여 “半錢匕”를 “一錢”로 바꾸었다. 그 이후로 이것이 계속 계승되어 “一錢”은 細辛이 넘을 수 없는 영역으로 여기어 오고 있다.

“錢匕”는 일반적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등과 같은 고서적에서 분말藥을 퍼 담는 기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함께 그 양(부피, 무게)을 측정할 수 있다<sup>5)</sup>.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細辛半錢匕는 현대의 약 1g정도라 여기어 진다<sup>6)</sup>.

또한, “錢”이라는 단위는 唐나라 초기에 開元通寶라는 화폐동전을 주조하며 물건의 무게를 세는 단위로 제정하여 그 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sup>7)</sup>, 一錢은 현대의 약 3g에 해당 한다고 알려져 있다<sup>8,9)</sup>. 그러나 화폐로 약재의 무게를 재어 그 양을 측정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그 기준에 큰 차이를 보이며, 옛날 화폐의 純度 역시 높지 않아서 一錢이 현대에는 몇 그람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sup>10)</sup>. 그리고 李時珍이 왜 “半錢匕”를 “一錢”로 바꾸어 적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本草綱目》에서 다른 本草類를 인용할 때 개인적인 改作과 混合을 한 부분이 있고<sup>11)</sup>, 시대적으로 《本草別說》이 지어진 때와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證類本草》는 宋이전의 本草類를 집대성하여 객관적으로 인용하였고<sup>12)</sup>, 시대적으로 《本草別說》과 근접해 있다. 따라서 문헌적 가치로 볼 때 《證類本草》가 한층 더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細辛不過錢”중의 “錢”의 의미는 一錢匕가 마땅하다고 사려된다<sup>13,14)</sup>.

### 2. 細辛의 약용부위 및 채집가공

옛 부터 細辛을 사용할 시는 순수하게 뿌리만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 이후부터 그 약용부위를 뿌리에서 전초로 바뀌었다<sup>25)</sup>.(표 1.참조)

표 1. 세신의 각 시대별 저서, 원문 및 약용부위

시대	저서	원문	사용부위
南北朝	《雷公 續灸論》 <sup>15)</sup>	一一搽去變葉，服之害人，須去頭上了…	變葉，頭上를 제외한根
梁	《名醫 別錄》 <sup>16)</sup>	細辛生草陰山谷，二月，八月采根，陰乾	根
宋	《本草 圖經》 <sup>17)</sup>	其根細而其味極辛，故名之細辛。二月，八月采根，陰乾用。	根
宋	《本草 衍義》 <sup>18)</sup>	用根……柔剉，核細直，深紫色，味極辛，嚼之聲聲如椒。	根
元	《湯液 本草》 <sup>19)</sup>	去頭蘆并葉。	頭蘆，葉을 제외한根
明	《本草 蒙筌》 <sup>20)</sup>	藥中惟採根煎，故因名曰細辛也。	根
清	《本草 害利》 <sup>21)</sup>	二，八月采其純陽，切其頭子…	頭節을 제외한根
清	《本草 從新》 <sup>22)</sup>	採出變葉者用	變葉을 제외한根
현대	《中藥學》 <sup>23)</sup>	5~7月間挖取全草，除去雜質泥沙，陰乾，切斷入藥。	帶根全草
현대	《本草學》 <sup>24)</sup>	…帶根全草이다.	帶根全草

이는 이 약재의 공급부족과 소비의 과다로 생산 시 완전한 뿌리를 얻기 위한 가공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sup>25)</sup>. 또한 채집 시기는 2, 8월로 정하였는데, 현재는 5~7월로 그 시기가 변하였다. 그밖에 예전의 가공 또한 단순히 뿌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根頭部의 根莖을 제외하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沈括은 《夢溪筆談》<sup>27)</sup>에서 “藥有用根，或用莖，葉，雖是 一物，性或不同，苟未深達其理，未可妄用.”라고 하여 동일한 약재라고 하여도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細辛을 약재로 사용할 시는 약용부위, 채집시기 및 가공에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 3. 細辛의 용법

《本草別說》에서 細辛의 “不可過半錢匕”는 두 가지 전제하에 사용된다. 그것은 그 앞에 나온 “單用末”이다. 즉 “單用”과 “用末”을 말하는 것이다. “單用”은 말 그대로 약재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탕제에 여러 가지 약재는 섞는 配伍가 아니다. “用末”은 오늘 날의 散劑에 해당하며 湯劑나 기타 다른 劑型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 “單用”과 “用末”이 두 가지를 간과하고 사용하게 되면 “不可過半錢匕”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陳承의 본래 뜻은 細辛散

劑(單用末)의 用量이며, 單用과 合用, 湯劑와 散劑. 研粉의 여부 등을 막론하고 細辛의 用量을 一錢 범위 안으로 사용하는 것은 후인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sup>28)</sup>. 옛 것에 얽매어 한계를 두는 것은 옳지 못한 발상이지만, 淸의 陳士鐸이 《本草新編》<sup>29)</sup>에서 “細辛，只可少用，而不可多用。亦只可共用，而不能獨用，多則氣耗而病增，獨用則氣盡而命喪.”이라 말한 것처럼 細辛을 單用과 獨用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하라는 것으로 사려 된다.

### 4. 역대 細辛過錢의 내용

《本草別說》보다 먼저 쓰여진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細辛의 용량이 過錢한 예가 13수에 이르며, 작은 것은 二兩(약 27g)에서 가장 많은 것은 三兩(약 42g)에 이른다<sup>37)</sup>.

이후에도 많은 醫書에서 현대의 一錢匕에 해당하는 약 1g을 초과하는 예가 많이 있다. 다만 細辛이 기준량을 초과한 것은 전부가 湯劑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劑型을 막론하고 細辛의 기준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내려온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세신의 각 시대별 細辛過錢의 저서, 방제 및 용량

시대	저서	방제	細辛용량	현대
東漢	《傷寒論》 <sup>30)</sup>	小青龍湯	二兩	약 42g
	《金匱要略》 <sup>31)</sup>	苓甘五味姜辛湯	二兩	약 42g
唐	《千金要方》 <sup>32)</sup>	獨活寄生湯	二兩	약 62g
宋	《和劑局方》 <sup>33)</sup>	加減五七散	一斤八兩	약 540g
明	《壽治准繩》 <sup>34)</sup>	潘氏補腸湯	二兩	약 90g
淸	《石室秘錄》 <sup>35)</sup>	治頭痛方	一兩	약 37g
	《醫學衷中參西錄》 <sup>36)</sup>	麻黃附子細辛湯	二錢非不可用	약 6g

淸의 陳修園은 《神農本草經讀》에서 말하길 “近醫多以此語忌用，而不知辛香之藥，豈能閉氣。上品無毒之藥何不可多用。方書之言，類此者不少，學者不善詳察，而遵信之.”이라고 하여 단지 醫書에 의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근래에서 임상에서 細辛의 기준량을 초과해서 사용한 연구보고가 많이 있지만<sup>38) 41)</sup>, 보다 많

은 연구를 통하여 細辛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 졌으면 한다.

## 결 론

細辛은 辛溫하고 芳香走窜하는 성질로 인하여 임상에서 痺證, 頭痛, 痙證, 驚閉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내려온 “細辛不過錢”說은 임상 및 연구에 많은 장애를 가져다준다. 《本草別說》에서 “細辛不可過半錢匕”라고 언급한 이후 《本草綱目》에서 “細辛不可過一錢”으로 고쳐지게 되고, 清代의 羅國綱은 《會約醫鏡》<sup>42)</sup>에서 “鞍細辛燥烈, 不可過用, 過用一錢, 悶絕而死.”라고 하여 細辛의 과용을 경고하고 있다. 그 후 부터 “細辛不過錢”으로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임상에서는 그것이 사용기 준치(3g)로 굳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單用末”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때의 용량이며, 다른 약제와 配伍하여 사용할 시에도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사려 된다. 그밖에 약용 부위, 채집시기와 가공 등을 잘 살펴서 사용해야겠다.

예로부터 우리조상들은 체질, 시간, 지역, 병인과 병증 등을 고려하여 한약재를 신중하게 써 왔다. 이것은 오랜 시간 누적된 우리의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의 유산이다. 하지만 원래 의도한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과거의 관습에 얽매어 이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는 것은 오히려 퇴보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단지 과거의 문헌과 현대의 몇 가지 임상보고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細辛不過錢”說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細辛의 용량이 과연 어디까지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어느 범위가 가장 효과가 좋은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6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1. 서부일 등, 韓藥本草學. 영림사. 2006:145
2. 吳普. 神農本草經. 卷一. 도서출판 醫聖堂. 1994:20
3. 唐慎微. 證類本草. 人民衛生出版社. 1982:164
4. 李時珍. 本草綱目. 華夏出版社. 1998:569

5. 郭正忠. 三至十四世紀中國的權衡度量.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261
6. 程磐基. 中華醫史雜誌. 2000. 第2期:109-113
7. 程先寬. 北京中醫藥大學. 2006:13
8. 吳承洛. 中國度量衡史. 上海書店出版. 1984:37.
9. 高曉山, 花杰.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1: 第1期:63-64
10. 彭信威. 中國貨幣史. 上海有民出版社. 1962:38
11. 尙志鈞, 林乾良, 鄭金生. 歷代中藥文獻精華.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9:291
12. 尙志鈞, 林乾良, 鄭金生. 歷代中藥文獻精華.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9:50
13. 金蘭. 湖南中醫雜誌. 1994. 01期:54
14. 董良杰. 中醫藥學刊. 2003. 第9期:1465
15. 雷敫. 雷公泡炙論.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6:19
16.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79:817
17. 蘇頌. 本草圖經.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97
18. 寇宗奭. 本草衍義. 도서출판 醫聖堂. 1994:48
19. 王好古. 湯液本草. 도서출판 醫聖堂. 1994:63
20. 陳嘉謨. 本草蒙筌. 人民衛生出版社. 1988:103
21. 凌奐. 本草害利. 中醫古籍出版社. 1982:50
22. 吳儀洛. 本草從新. 杏林書院. 1972:16
23. 高學敏. 中藥學. 人民衛生出版社. 2000:198
24.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本草學. 영림사. 2005:170
25. 蔡少青, 王璇, 朱姝. 北京醫科大學學報. 1997(3):233
26. 沈保安. 中藥材. 1987. 第2期:55
27. 沈括. 夢溪筆談. 安徽科技出版社. 1979:250
28. 張玉連. 中醫學學報. 1986. 第6期:27
29. 陳士鐸. 本草新編.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125
30. 張仲景. 傷寒論. 中醫古籍出版社. 1997:24
31. 張仲景.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1997:35
32. 孫思邈. 千金要方. 杏林出版社. 1974:366
33. 太平惠民和劑局編. 和劑局方.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19
34. 王肯堂. 證治准繩.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35. 陳士鐸. 石室秘錄. 人民衛生出版社. 2006:18
36. 何清湖. 中華醫書集成. 第三十三冊. 中醫古籍出版社. 1999:704
37. 徐桂萍, 李端榮. 時珍國醫國藥. 1988. 第4期:299
38. 劉逢臣. 中成藥研究. 1983. 第2期:41
39. 劉尙延. 中藥通報. 1983(4):38
40. 劉文漢. 中醫雜誌. 1983.24(2):79
41. 何永山. 浙江中醫雜誌. 1984.2(2):70
42. 羅國綱. 會約醫鏡, 人民衛生出版社. 1965:583